

Christian Dior 오뜨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공 미 선* · 채 금 석**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 산업학과 겸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Design Originality of Christian Dior's Haute Couture

Mi-Sun Kong* · Keum-Seok Chae**

Concurrent Prof., Division of Human Major in Fashion Design & Industrial, Silla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2. 10. 2 투고)

ABSTRACT

Modern Haute Couture represents artistic views through its image, symbol, and originality.

Haute Couture's original art has been kept as a design technics which is the fusion of timely, original Maison's concept, plastic beauty as designer's personality.

Christian Dior's maison continued by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 Gianfranco Ferré and John Galliano who emphasize elegant image which has avant-garde trends came from post modernism.

Christian Dior Haute Couture's design which can be symbolized by the feature of timely variation and new feeling of continuing designers has the following originalities.

1. Christian Dior Haute Couture's design has been affected by the timely art-trends.
2. Christian Dior Haute Couture's design concept is represented as Nobly Chic Elegance, Feminine Elegance, Sophisticately Chic Elegance, Fantastically humourous Elegance therefore, the traditional concept of Elegance are maintained.
3. Christian Dior Haute Couture's design technic not only emphasizes the details of collars and up side of clothes or trimming but also pursuits the total beauty of balanceness with the harmony of the evenness between other factors.

Key Words: Timeliness(시대성), Maison's concept(메종의 컨셉), Design technic(디자인 테크닉),
Modernism and postmodernism(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Elegance(엘레강스),
Emphasis technic and beauty of balanceness(강조기법과 균형미)

I. 서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대패션의 특성은 새로운 창조의 실험실로서 섬세한 예술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해내고 있는 오프꾸뛰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프꾸뛰르는 라이선스, 브티크(Boutique) 즉, Preta-Porter와 함께 꾸뛰르 그룹이 전개하는 기본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꾸뛰르 그룹은 상품의 순환과 주기가 가속화되면서 현대 소비문화의 구조로 초래되는 위험을 1960년 이후 오프꾸뛰르의 생존전략의 한 방편으로 시행한 라이선스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 컬렉션 자체 변화로는 오프꾸뛰르의 프레타 포르테화와 디자인이 보다 아방가르드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통합양식으로 나타나는 퍼포먼스(Performance)적인 현상을 오프꾸뛰르 패션쇼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하이패션이라 할 수 있는 오프꾸뛰르와 대중적인 패션의 구분을 모호하게도 하지만 오프꾸뛰르는 아직도 그 우아한 이미지나 상징성, 독창성으로 패션에 있어 최고급 소비지향 문화로서 수용된다. 우아한 이미지, 상징성은 오프꾸뛰르의 성립배경과 조직이 전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입지적인 명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꾸뛰르에 있어 독창성이란 세련된 품격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유일함으로 시대성, 메종(Maison)의 디자인 컨셉, 조형미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개성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 테크닉 등으로 표출되는 메종의 오리지날리티(Originality)이다.¹⁾ 즉, 그 오리지날리티는 디자이너 한 개인이나 브랜드의 단편적인 조형적 특성이 아니라 메종 1세의 디자인 컨셉을 전수, 유지하면서 시대적 특성과 교체되는 각 디자이너의 개인성에 따라 변화되어 재현되어지는 메종의 디자인적 독창성이다. 또한 그 개인성은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디자이너의 총합 조형감각으로서 디자인 원리를 전개시키는 방

법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적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오프꾸뛰르에 관한 연구는 김미옥(1990), 김은리(1982)가 오프꾸뛰르 조직의 배경과 역할에 관해 다루었고 공미선(1998)은 파리와 로마의 오프꾸뛰르 디자인을 분석하여 창작디자인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김선영(2001)은 오프꾸뛰르 디자인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구미지(2001)는 디자인 요소와 구성방법으로 Galliano가 재해석한 Christian Dior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오프꾸뛰르 메종의 조직이나 미의식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아니고 많은 발상의 종류와 디자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고감도 창작의상이라 할 수 있는 오프꾸뛰르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디자인에 있어 메종의 디자인 연계성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원리를 다루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한 메종에서의 각 디자이너의 미묘한 감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초기 Christian Dior 디자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쉬크(Chic)한 엘레강스의 특징이 현대 오프꾸뛰르에서는 John Galliano에 의해 혁신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변화된 Dior 오프꾸뛰르의 독특한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메종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각 디자이너들의 개인적인 감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탈리아 오프꾸뛰르 디자인실에서 Collezioni라고 칭하는 작품집 디자인을 전개할 때 간혹 요구되는 것으로 컬렉션의 집약된 컨셉을 발견케하고 디자인에 있어 밀도있는 분석적 시각을 기르게 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감각적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창작디자인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론화 시키는데 있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Christian Dior 오프꾸뛰르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예술의 대중화 개념이 도입되었고 패션에서 프레타 포르테의 비약적 발전을 보였던 1960년을 기점으로 1910년에서 1950년대까지, 그리고 1960년에서 2002년 현재까지로 나누어 이 시기의 오프꾸뛰르 디자인 경향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알아본다.

둘째, Dior 메종 1세인 Christian Dior에 이어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 Gianfranco

Ferré 이후 최근의 주임디자이너인 John Galiano 에 이르는 Christian Dior 교체디자이너별 작품의 특성을 조형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Christian Dior 오프뚜띠르 디자인에 있어 시대적 특성과 메종의 컨셉, 디자이너들의 조형미를 다루는 테크닉을 비교, 연구해봄으로써 Dior 오프뚜띠르에 표현된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를 고찰해 본다.

작품은 Dior 메종이 소속된 파리 오프뚜띠르에 국한하였으며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의 작품은 "Yves Saint Laurent", "Christian Dior' 작품집에서 살펴보고 Gianfranco Ferré의 작품은 Collezioni 1989년 N.10 부터 1995년 N.36까지 그리고 John Galiano의 작품은 Book Moda 1996년 N.26 부터 2002년 N.58 까지의 잡지에 게재된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오프뚜띠르의 디자인 경향

오프뚜띠르 디자인은 순수한 형태의 간결한 라인과 패션에서 다양한 표현기법이 나타난 두시대로 크게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제1시대는 1910년에서 1950년까지이며 특히 1910년에서 1920년대에는 전 시대의 재현적 스타일이 공존하였던 시대로서 심플리시티(Simplicity)라는 절제된 라인의 기초가 이루어진 1930년 이후를 묶어서 1시대로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에서 1950년 이 시대에는 디자인의 상업화가 예술, 사회전반에 합리적 기능주의,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그리고 디자인 진흥정책이 수립, 전개되면서 심플리시티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모더니즘 예술사조가 파급되었던 시대로서 오프뚜띠르 디자인에도 '절제'라는 고유한 라인이 확립되었다. 제2시대 196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문화, 예술전반에 디자인이 사회를 반영하는 하나의 전제로서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개념이 표출되었던 시대이다. 그리고 기능주의가 표현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에서 그 미적 가치가 결핍된다는 비판과 함께 모데

니즘에 대한 반동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전시대보다 더 복잡한 표현의 아방가르드(Avant-Garde)한 양식이 예술전반에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오프뚜띠르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어 무한한 예술적 표현영역을 창조하고 있다.

1. 심플리시티

Charles Frédéric Worth(1825~1895)에 의해 창시된 오프뚜띠르는 오프뚜띠르가 재구성된 1910년대부터 모더니즘 예술사조가 파급되었던 1950년대까지 특정한 라인의 스타일로 정립되었다. 스타일은 특정한 삶의 방식 또는 특정한 문화적 감수성이 집약되어 있는 한 표현²⁾으로서 오프뚜띠르 디자인은 이 시대의 모더니즘 양식의 영향으로 기능적이고 절제된 구조적 조형미의 우아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바로크 양식, 고딕양식, 빅토리아 양식, 동양풍 등의 곡선적인 장식성이 표현되었던 1900년 이전의 예술경향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구조적이며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며 순수한 형태로 구성되는 간결한 양식이라 할 수 있는 모더니즘 운동³⁾이 건축과 모든 예술전반을 지배했다. 물론 패션의 역사에도 중요하고도 충분히 입증된 모더니즘의 단계가 있다. 미에스 반데로에(Mies Van de Rohe), 피에 몬드리안(Piet Mondrian)에 의해 순수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의상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겼고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월터 글로피우스(Walter Gropius), 카시미르 말레비치(Kasimir Malevich)등도 예술분야에서의 모더니즘 혁명을 의상에 확장시켰다.⁴⁾

이 시대 사회현상으로는 신부르조아 계급의 대두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지위향상으로 새로운 여성상이 부각되었으며 1, 2차 세계대전 후 소비사회로의 변화는 젊은이 중심의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양식 등의 예술양식이 패션에 직접적으로 표현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패션에 특정 스타일이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S자 커브실루엣과 그 후 기하학적인

아르데코 양식이 나타나면서 Empire Tunic, Hobble, Minaret 스타일이 등장하였으며 1914년 이후 Tubler, Straight Box Style 등이 출현하여 제 1차 세계대전기의 복식을 이루었고 1947년 풍부한 여성미를 나타낸 Christian Dior의 “New Look”은 새로운 라인의 개발로 2차 대전 이후 침체되었던 오프꾸뛰르가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프꾸뛰르 디자인에 있어 특정 라인이 이루어졌던 이 시대는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시기(1910년~1920년)는 재현과 변화의 시대이며 2시기(1930년~1940년)는 20세기 패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대로서 독특한 개성적인 스타일이 등장했었고 3시기(1950년대)는 오프꾸뛰르 디자인이 간결하고 절제된 특정한 라인으로 형성되어 창조적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시기, 재현과 변화의 시대에는 Doucet, Paquin의 자수, 레이스 등의 트리밍 장식위주의 복고적인 실루엣이 재현되었으며 동양풍을 가미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던 Callot 자매, 실루엣에 동양풍을 가미했으며 코르셋을 제거하여 라인의 단순화를 가져왔던 Poiret, 또 스마트하고 단순한 의상을 시도했던 Patou에 의해 전 시대의 재현과 다가올 시대의 심플리시티라는 새로운 모드가 공존했다. 2시기는 Maggy Rouff, Molyneux, Nina Ricci가 우아한 이미지의 절제된 라인을 선보였고 Chanel의 기능적인 의상, Elsa Schiaparelli의 초현실주의 의상과 Vionnet의 바이어스 구성을 이용한 의상 등이 혁신적이고 독특한 개성적인 스타일로 오프꾸뛰르에서 보여졌다. 1950년대인 3시기는 Balenciaga에 의한 형태위주의 절제된 구축적 디자인, Givenchy의 심플(Simple)한 순수함, Chanel의 단순한 기능성, Christian Dior의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절제된 라인의 구조적 디자인이⁵⁾ 발표되어 오프꾸뛰르에 특정 라인이 정립되었던 창조적인 시기이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공통되는 양식인 어떤 특성⁶⁾이 있었는데 이 시대의 오프꾸뛰르 디자이너들에게도 그들 고유의 독특한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모더니즘 미학은 독창성에 대한 숭배⁷⁾로 1910년에서 1950년대의 오프꾸뛰르는 기능적이고 절제된 구조적 조형미를 우아함

이라는 오프꾸뛰르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그 시대 오프꾸뛰르만의 간결하고 절제된 독창적인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심플리시티를 창출했다.

2. 아방가르드

1960년 이후 현대에 이르는 오프꾸뛰르 디자인은 다양한 아방가르드적 이미지가 복합되고 병존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흔히들 포스트모던 이론이 탈 동일화의 자세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때 이용되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방가르드 역할과 기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방식⁸⁾이라고 한다. 아방가르드는 전대나 기존의 가치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한 부정의 정신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며 실험적인 현대예술을 의미⁹⁾하는 것으로 현대에 있어 전 시대와 연결되는 또다른 아방가르드로서 현대 오프꾸뛰르의 아방가르드함은 모더니즘 시기에서의 또 다른 아방가르드함을 의미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분절하지 않고 연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질충주의와 혼성잡종양식이 유행하는 다양성, 레트로 양식, 패러디 혼성과 모방에 관련된 콜라주 테크닉, 장식과 꾸밈의 재수용, 복잡다단한 모순 그리고 애매함이 간결성, 순수성, 합리성을 대신하는 가치¹⁰⁾로써 표현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이 만연된 현대사회의 오프꾸뛰르 디자인은 어떤 특정 스타일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되고 병합하는 모순된 이미지의 조형작업으로 시도된다.

1960년대의 사회현상으로는 록스타의 등장, 반전운동, 히피문화, 유니섹스모드, 여성해방운동이 가시화되었고 고전문화의 복귀 및 세계주의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산업화, 정보화, 디지털시대로의 대변혁이 일어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가속화되어 사회, 예술, 문화 전반에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혼성모방이 만연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예술사조로는 옵아트, 팝아

트, 미니멀리즘 양식이 파급되었다.

오프꾸뛰르 디자인에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아방가르드 경향이 나타났던 1960년부터 현재까지는 다양한 예술적 양식이나 표현기법이 시작되었던 1시기와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내면적인 심상을 표현하는 포스트모던한 주제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2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시기(1960년~1980년)는 다양한 예술적 감성 이미지가 컨셉으로 표현되어 아방가르드한 표현이 전개, 확산된 시기이며 2시기(1990년~현재)는 모순된 다양한 기법과 인간의 정신성이 주제로 혼재, 병합되는 아방가르드한 표현기법이 발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Dior 메종에 소속된 디자이너의 이해를 위하여 오프꾸뛰르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오프꾸뛰르 정회원인 아닐지라도 전문잡지에 컬렉션을 발표하는 메종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꾸뛰르산업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정 컬렉션을 발표하는 꾸뛰르는 오프꾸뛰르 총위원회 임시간사에게 청하여 오프꾸뛰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꾸뛰르-디자인은 정식 오프꾸뛰르로서, 두기업 모두 오프꾸뛰르라 명명할 수 있다.

전문잡지에 컬렉션을 발표하는 신진 디자이너인 Elie Saab, Dominique Sirop, 그리고 현재 컬렉션을 발표하진 않지만 오래된 오프꾸뛰르인 Lapidus는 전문잡지에 발표된 마지막 컬렉션(2000-2001, A/W)까지를 연구하였으며 현재 디자이너가 바뀐 Givenchy 메종은 Alexander McQueen 컬렉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시기는 패션컨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의 기초가 되는 미의식의 장르가 넓어지고 전 시대의 간결한 외적 조형성을 표현했던 조형요소보다 이 시기에는 비례, 리듬, 균형, 통일 등의 다양한 조형원리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으로 두드러졌다. 이시기는 전통적인 의상습관을 탈피한 젊고 실용적인 감각과 전위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창작의 풍요로움이 가득찬 시기로서¹¹⁾ Roberto Capucci, Pierre Cardin의 기하학적인 조형미, Courrèges의 심플리시티, Hanae Mori, Scherrer의 이국미, Pacco Rabanne, Ted Lapidus의 실험적인 소재의

변용, Emanuel Ungaro의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표현, Yves Saint Laurent의 매니쉬한 느낌의 정형성, Jean Paul Gautier의 구성의 변형을 통한 부조화의 외관, Thierry Mugler의 환상적인 미래지향의 안티모드 등, 다양한 컨셉이 전개되었다.

2시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여러가지 혼재된 아방가르드 조형미가 오프꾸뛰르 디자인에 현저하게 나타난 시기로서 아방가르드 성향 중에서도 이전의 메종컨셉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메종과 디자인 컨셉의 변화를 꾀하는 진보적인 메종, 그리고 디자인 컨셉의 전위적인 변화를 보이는 혁신적인 메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보수적인 메종은 현대패션 경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조적인 직물사용으로 변화를 주고 있지만 기존의 디자인컨셉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메종으로 Odicini, Yves Saint Laurent, Scherrer, Torrente, Pierre Balmain, Lapidus 등이다.

진보적인 메종은 이전의 컨셉과 고정적인 특징 있는 라인이 남아있으나 부분적으로 변화를 꾀하여 달라진 메종이다. Elie Saab, Dominique Sirop 등의 신진디자이너들은 인체에 밀착된 실루엣과 소재의 변화를 특징으로 진보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Ungaro는 이전의 다양한 직물매치가 아닌 원색적인 단색 직물조화의 밀착된 실루엣으로 극도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Christian Lacroix의 다양한 색채의 직물, Jean Paul Gautier의 구성상의 해체와 변형으로 그들은 이전 컨셉을 유지하되 그 특성을 최대한 극대치로 표현하여 오프꾸뛰르의 우아함과 풍성함,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또다른 변화로서 표현한다.¹²⁾ Lacroix의 엘레강스¹³⁾, Gautier의 쉬크¹⁴⁾에 대한 격찬은 그들이 가진 의상으로서의 정형성을 잃지 않고 현대패션의 진보적인 경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메종은 메종의 이미지가 거의 변형되고 현대패션의 모든 양식과 기법이 혼재되어 전위적인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종으로 Givenchy와 특히 Christian Dior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 보여진다. 2001-2002 A/W 부터 Julien Macdonald가 좀 더 일상적인 스타일로 컬렉션을 이끌고 있지만, 이

전의 Alexander McQueen에 의한 Givenchy는 일반적으로 자연, 동물, 곤충, 신화의 이미지를 미래적인 표현과 함께 재현적으로 형상화했다. 무엇보다 염색, 몰딩(Molding)소재 등의 창의적인 소재로 디자인 포인트를 과장하며 과감한 커팅, 화려한 색채, 형상화된 이미지는 오뜨꾸뛰르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서 그 조형성을 나타낸다. John Galliano가 표현하는 Christian Dior은 토속적인 이미지나 심상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아이러니(Irony)가 가득 찬 유머(Humour)로 패러디(Parody)한다. 형태의 해체, 분열을 통한 비정형화, 부조화, 그리고 속옷을 겹쳐서 다층감을 표현하며 강조점을 주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살려 Christian Dior 패션의 정수인 엘레강스를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현대 오뜨꾸뛰르 디자인은 이전의 일반적인 컨셉인 사물이나 패션 트렌드와 함께 자연주의적 이미지, 동식물, 잠재된 심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컨셉으로 표현하며 주로 혁신적인 매종에 의해 자연이나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정신성'을 표출하고 현대의 다수 매종들은 인체의 노출과 밀착된 실루엣, 의복형태의 비정형화, 소재의 부조적 경향, 다양한 색채혼합과 과다장식을 추구한다. 디자인 테크닉은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트리밍의 해체, 왜곡, 전위 등의 비정형성을 혼합하며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수공예적인 기술의 극대치로 오뜨꾸뛰르만의 다양하고 복합된 조형미를 추구한다.

"Art & Costumes and Misdemeanour"라는 패션평론에서 현대 오뜨꾸뛰르에는 비일상성, 비실용성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Alexander McQueen, John Galliano에 의한 Givenchy, Christian Dior 매종의 활력, 생명력¹⁵⁾을 평가하였듯이 혁신적인 이들 매종은 창조의 산실로서 현대패션을 이끌어 나가는 창의적 역동성을 보여준다. 질서, 일관성, 체계적 통합성에 익숙한 사람들의 시각은 이제 무질서, 모호성, 차이를 강조하는 형상(Figure)과 이미지(Image)라는 새로운 인지 틀을 습득해야 하는 것¹⁶⁾처럼 현대 오뜨꾸뛰르는 비정형화, 부조화라는 복합되고 다양한 이미지의 조형미로 현대 아방가르드의 실험적 표현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Ⅲ. 디자이너에 따른 Christian Dior 오뜨꾸뛰르의 조형성

Christian Dior 매종은 Christian Dior이 1947년 매종을 오픈하여 1957년 사망시까지 Dior이 운영하였고 Dior 2세로서 Yves Saint Laurent이 1958년부터 1960년까지 Dior 매종을 이끌어 갔으며 Dior 3세는 Marc Bohan으로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매종을 책임졌다. Dior 4세는 Gianfranco Ferré이며 1989년부터 1996년까지 Dior 매종을 이끌었으며 1996 A/W부터 현재에는 John Galliano에 의해 Dior의 영원한 아름다움인 엘레강스를 현대적 아방가르드 조형미로 표현하고 있다.

Christian Dior 매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성은 정제되고 손질된 형태, 동계열의 색상배합, 수공예적인 자수나 레이스 장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표현하면서도 디테일이나 트리밍의 형태요소 중 한가지를 강조하는 테크닉으로 그것은 Dior 매종에서 전수되는 컨셉이라 할 수 있다. Dior 1세에 이어 Yves Saint Laurent은 자연스러운 형태와 리듬감이 두드러진 개인성이 엮이며 Marc Bohan은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고 젊은 감각을 나타내며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라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Christian Dior을 재현했다. Gianfranco Ferré는 Dior 1세의 컨셉에 건축적 형태, 도회미, 화려한 직물 등의 새로움을 부여하였으며 John Galliano의 Dior은 패션테마가 아닌 정신성을 표현하는 컨셉으로 변형되어 전혀 다른 이미지처럼 보이나 형태, 색상, 소재와 모든 디자인 조형원리를 부조화, 비정형화시키며 그런 가운데 균형미를 추구하여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현대적 Christian Dior의 엘레강스를 재 창조하고 있다. 이렇듯 교체 디자이너에 의해 전수되는 조형성은 그들의 개인적인 조형감각이 첨가된 디자인으로 찬사와 혹평을 받기도 한다.

1. Christian Dior

Christian Dior은 처음 모자스케치를 한 경험으

로 패션계에 입문했으며 1938년 균형, 절제, 감각을 지녔던 Robert Piquet 메종과 뛰어난 시대감각을 지녔던 Lucian Lelong에서 모델리스트(Modelist) 경험을 쌓았다. 그는 1957년 사망에까지 패션에 있어 시대감각과 창의적 조형성을 지닌 세련되고 쉬크한 엘레강스의 의미를 확립한 금세기 최대의 디자이너였다.

“나는 둥근 어깨, 크게 돌출된 여성적인 가슴, 그리고 옷자락 끝을 향해 확 벌어진 스커트, 손에 잡힐 듯 가는 웨이스트, 꽃과 같은 여성을 위한 옷을 디자인하고 싶었다”¹⁷⁾라고 하였듯이 그는 1950년대 궁핍했던 시절인 전쟁 후 화관, 혹은 8라인이라는 풍만한 가슴과 셰이프된 허리, 벌어진 스커트의 아주 여성스러운 “New Look” 실루엣을 개발했으며 A라인, H라인, Y라인, Vertical라인, Oval라인, Tulip라인, Magnet라인, Liberty라인, Spindle라인 등 일련의 의상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의상들은 우아한 여성과 예의바른 사회계층을 위해 만들었다¹⁸⁾고 하였는데 그의 ‘New Look’은 기본적으로 복고적인 귀족적 취향의 빅토리아풍으로 엘레강스한 여성적 스타일¹⁹⁾이라는 부르조아적 패션으로 전쟁 후 오프꾸뛰르의 독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새로운 모드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패션은 여성스런 곡선의 구축적인 형태를 턱(Tuck), 개더(Gather) 혹은 이중소재로 볼륨감을 나타내는 입체적인 실루엣 <사진 1>과 인체의 곡선이 나타나는 형태에 칼라(Collar), 포켓, 커프스 등의 디테일과 혹은 간결한 트리밍을 강조하는 실루엣 <사진 2> 그리고 인체를 강조하지 않는 형에 디테일과 트리밍이 거의 제거된 심플하고 기하학적인 실루엣 <사진 3>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lack, White, Red, Pink, Grey 등과 그러한 색상의 동계열 색채배합, 볼륨을 살릴 수 있는 소재, 꽃무늬, 그래픽 무늬, 그리고 수공예적인 자수나 레이스를 즐겨 사용했다. 그의 패션은 자연스럽게 우아한 이미지의 구조적 실루엣으로 구성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입체화하거나 칼라, 포켓, 커프스 등의 디테일을 과장하고 특히 칼라나 목부분을 강조한다. 그가 즐겨쓰는 트리밍인 리본 혹은 조금

큰 듯한 단추를 액센트로 강조하여 정제된 인위적인 라인으로 손질한다. 그의 형태는 구조, 구성력에 역점을 두었고 형태는 소재에 의해서 구성되고 소재의 특성은 형태에 생명력을 준다²⁰⁾고 하였듯이 단순히 하나의 조형요소보다 관련된 전체요소의 조형감각을 관련지우면서 특히 그중에서 하나의 요소를 과장하여 강조하는 조형적 테크닉으로 우아함이라는 이미지를 능숙하게 표현했다.



<사진 1> Christian Dior(1952). 「Christian Dior」, p.219



<사진 2> Christian Dior(1950). 「Christian Dior」, p.100



<사진 3> Christian Dior(1955). 「Christian Dior」, p.132



<사진 4> Yves Saint Laurent(1958)

2. Yves Saint Laurent

1958년에서 1960년까지 Dior 디자인을 맡은 Yves Saint Laurent은 1954년 국제양모사무국이 주최한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고 Christian Dior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으며 1957년 Dior 사망 후 Dior 메종의 디자인을 맡았다. 1958년 Dior 메종의 첫 컬렉션에서 사다리꼴 실루엣인 트라페즈 라인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으나 1960년 컬렉션에서 악어가죽으로 만든 재킷, 스웨이드 슬리브(Sleeve)가 달린 밍크코트, 슈즈 밑에 받쳐입은 터틀넥의 발표는 너무 앞서가는 그의 시대감각으로 언론과 대중의 혹평을 받았으며 그것은 Dior을 위한 마지막 컬렉션이 되었다.

Dior을 위한 컬렉션 중 1959년과 1960년 가을·겨울에 발표된 의상들²¹⁾을 살펴보면 그의 형태는 구조적이라기 보다 몸에 적당히 밀착된 자연스러운 형태이다. 과장되지 않은 실루엣과 언밸런스의 끈, 리본은 크기나 위치 때문에 평범한 리듬감으로 보여진다. <사진 4> 그리고 실크 타프타(Taffeta) 칼테일 드레스와 벨벳 드레스는 H형의 실루엣에 셔링(Shirring)을 잡아 리듬감으로 사용되었으며 비례적인 배치는 균일한 느낌의 안정된 패션으로 표현된다. 그는 Dior의 구조적이고 절제된 라인의 정교함과 인위적으로 손질된 엘레강스를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재현하였다. 그의 패션은 클래식한 형태이다.²²⁾

3. Marc Bohan

1961년부터 1988년까지 Dior을 맡았던 Marc Bohan은 Dior의 후계자로서 안정적으로 공헌했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는 단순함과 절제미를 추구하는 Molynoux, 균형, 엘레강스, 심플리티를 지향했던 Piquet, 동적 움직임의 단순한 구조적 의상을 지향했던 Jean Patou²³⁾를 추종했으며 한때 그들의 메종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가 절제된 선과 구조적 의상을 창출했던 디자이너로서 Marc Bohan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에 기초하여 액티브

(Active)하고 세련된 패션을 즐길 줄 아는 매너(Manner)를 가진 절도와 품위있는 여성을 표현한다.²⁴⁾ 이처럼 그의 의상은 젊음과 대중성을 지향하며 Dior의 이미지를 토대로 하여 간략한 선, 과장되지 않은 적절한 형태의 여성스러움과 드레이프나 개더로 부분적인 조형미를 표현했으며 생동감 있는 화려한 직물은 새로움, 젊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칼라, 포켓, 소매는 최소한 표현되어야 할 제자리에 간결히, 절제되어 부착되었다. <사진 5>

4. Gianfranco Ferré

Gianfranco Ferré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Dior 메종을 맡았고 Dior의 에스프리(Esprit)를 그대로 호칭한 듯한 현대적인 우아한 아름다움을 컬렉션에 표현했다. 그는 건축전공을 하다가 액세서리 디자인을 한 계기로 패션계에 진출했으며 이탈리아 Krizia 디자이너로 있었던 Walter Albini에서 패션 기획을 맡았고 이탈리아에서 그의 브랜드인 Ferré 프레타 포르테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의상은 건축가다운 포름을 창출하는 것으로 자기 주장이 있는 지적으로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러나 그 지적인 뉘앙스는 단순한 아카데미한 수준이 아니라 성숙하고 섹스어필한 당당함이 내포되어 있다²⁵⁾고 하였듯이 그의 디자인 <사진 6>, <사진 7>은 Dior의 엘레강스에 지성미와 도회적인 세련미가 더불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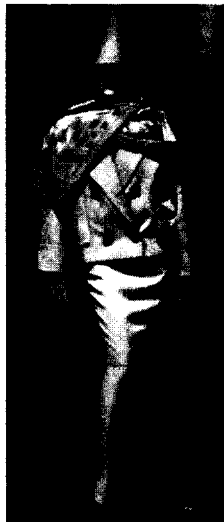
그의 디자인 테크닉은 우아한 곡선적인 이미지의 불림있는 형태, 부분적인 여밈이나 햄라인에서의 직선적인 언밸런스의 대담한 커팅선, 그래픽, 꽃무늬 등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직물과 동일 계열의 색채혼합, 수공예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의 자수와 레이스, 디테일, 트리밍을 사용하되 특히, 칼라나 상의부분의 디테일을 강조하며 리듬과 강조 기법을 다시 전체 균형미로서 가다듬어 Dior 1세보다 더 복합적인 테크닉과 풍요함으로 Dior의 엘레강스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사진 5> Marc Bohan(1986).
『Christian Dior』,
p.291



<사진 6> Gian franco Ferré('92, '93).
Book Moda, F/W



<사진 7> Gian franco Ferré('96, '97).
Book Moda, F/W

5. John Galliano

John Galliano는 오프꾸뛰르만이 제공할 수 있

는 최대의 화려함, 고급스러움과 창의성으로 그 이미지부터 형태까지 아방가르드한 표현으로 현대 오프꾸뛰르를 새로운 혁신적인 모드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그는 세인트 마틴 (Saint Martin's school of London)에서 텍스타일과 기초기술을 배웠다. 1984년 졸업작품으로 패션계에 데뷔했으며 그가 공부한 것은 회화나 커머셜아트, 그래픽과 예술전반을 공부했다. 1995년에서 1996년까지 Givenchy 주임디자이너로 있었으며 1996년 A/W부터 현재까지 Christian Dior 메종의 주임디자이너인 그는 그가 습득한 예술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본 테크닉, 그의 창조적 기질로 패션 이미지를 환상적인 실체로 만들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시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좋아한다. 내 머릿속에는 언제나 실제로 본 것과 감성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실체가 춤을 추곤 한다”²⁶⁾고 하였듯이 그는 실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비형체의 감성을 형태화한다. 그의 Christian Dior은 토속적인 이미지나 원시성 그리고 심상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패러디하여 형상화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미적장치로 취급된 패러디는 아이러니한 인용, 차용, 혼성모방과 같은 개념을 패러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²⁷⁾ 그는 기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환상적이고 유머스럽게 표현하여 Dior의 엘레강스를 표현하며 심플, 엘레강스, 페미닌한 오프꾸뛰르의 정형적인 아름다움에 부조화, 비정형성을 나타낸다. 부조화, 비정형성은 추의 개념에서 나오는 활기와 생동감을 주는 것으로²⁸⁾ 그의 디자인에 동적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디자인 테크닉은 트레이프나 개더로 전체형태가 아닌 부분적으로 볼륨감을 나타내고 비대칭, 비정형화된 스타일에 소매나 칼라를 과장하거나 해체시키고 속옷을 겹옷으로 전위시키기도 한다. 부조화스러운 소재를 조화시키기도 하지만 다양한 색상조화와 더불어 Dior의 우아함을 동계열의 이질소재로 나타내며 레이스, 러플(Ruffle)의 과다장식은 여러 가지 조형요소와 혼합되어 어우러지고 비례, 리듬이 복합되어 있지만 칼라나 목부분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트리밍적 요소중 하나

를 과장하여 강조하기도 한다. 그는 이미지에서 형태까지 모든 조형요소를 변형, 파괴, 해체시키고 비례, 리듬을 혼합하여 복잡한 그 부조화 중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대단히 고감도의 조형적인 테크닉을 구사한다. <사진 8>



<사진 8> John Galliano(2000). Book Moda, S/S

IV. Christian Dior 오프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창조적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오프꾸뛰르 메종의 디자인은 변화하는 시대성, 전수된 메종의 디자인 컨셉, 조형미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개성이라 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그 오리지널리티가 표현된다.

오프꾸뛰르 디자인은 예술성과 기능성이 잘 조화된 고도의 테크닉과 기술이 요구되는 창작디자인으로서 시대적인 예술사조나 시대정신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Christian Dior의 새로운 라인들은 2차 대전후의 시대적 변화, 사회 문화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²⁹⁾³⁰⁾ 이후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에 의해 Dior 라인의 전통성이 유지, 전수되었고 Gianfranco Ferré에 이어 최근 John Galliano의 디자인에서 Dior 라인이 유지되면서도 포스트모던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의복형태의 해체, 분열을 통한 비정형

화, 부조화, 플라주, 과대장식 등의 경향이 Dior 오프꾸뛰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컨셉은 패션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패션 이미지, 실루엣, 컬러, 소재, 문양, 액세서리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초기컨셉은 전수되며 교체 디자이너의 특성이 부가되는 것으로 Christian Dior 디자인 컨셉은 정제되고 손질된 형태, 동계열의 색상배합, 수공예적인 자수나 레이스 등으로 엘레강스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조형미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개성은 디자이너가 선호하는 혹은 습득된 조형성으로 조형요소에 비례, 리듬, 균형, 통일, 강조인 조형원리를 구성하는 통합감각이라 할 수 있는³¹⁾ 디자인 테크닉이며 Dior 메종에서의 디자인 테크닉은 전체 균형을 나타내면서도 디테일이나 트리밍 중 하나의 디자인 요소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강조 기법이다.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Christian Dior 오프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는 “유일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 시대성

Christian Dior이 다양하고 새로운 라인을 개발한 1950년대는 모더니즘 양식이 예술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시대로서 구조적이며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며 순수한 형태의 심플리시티가 정립되었던 시대로 Christian Dior의 곡선적인 형태와 간결하게 정제된 심플라인은 모더니즘의 특성에서 비롯된 유기적 모더니즘의 경향이라 볼 수 있다. 유기적 모더니즘은 1940년대부터 나타난 것으로 기능적, 기하학적, 구조적, 추상적인 간결한 형태를 근간으로 하지만 가느다란 선과 추상적인 덩어리 형태와의 균형, 간결하고 순수하며 비대칭적인 것으로 아주 자유로운 형태를 특징으로 하였다.³²⁾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의 Dior을 위한 초기 컬렉션은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의 기초가 되는 미의식의 장르가 다양해져 오프꾸뛰르 디자인의 표현영역이 넓어졌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시기였다. 또, 어떤 물질로서의 기능성보다 다양성, 효용성, 현대성과 같은 하나의 기호로서의 의미론적 실용주의가 작용되어 모더니즘의

위기에서 창출되고 전개되었던³³⁾ 포스트모던의 아방가르드한 양상이 전개, 과급된 시기로 Yves Saint Laurent의 새로운 모드개념의 절충주의, Marc Bohan의 현대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한 대중적인 모드성향이 Christian Dior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Gianfranco Ferré, John Galliano 그들이 표현하는 현대의 Christian Dior은 포스트모던 이미지가 발화된 1990년 이후의 시기로서 패션에 심상의 이미지를 형태화하는 정신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혼성모방, 레트로 양식과 부조화, 비정형이라는 표현기법들이 패션에 적극 수용되는 시대적 특성을 보인다.

2. 메종의 디자인 컨셉

Christian Dior의 디자인컨셉은 시대감각과 창의적 조형성을 지닌 세련된 엘레강스, 귀족적 취향의 부르조아적 패션으로 여성스러운 곡선의 구조적 형태, 은은한 색조의 동일계열의 색상조화, 스트라이프, 꽃문양과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소재, 정제되고 간결한 인위적인 라인 등이라 볼 수 있다. 그의 디자인컨셉을 정리하면 구조적 형태와 인위적으로 손질된 심플한 라인으로 엘레강스를 표현한, 귀족적인 품격이 있는 쉬크 엘레강스이다.

Yves Saint Laurent이 표현한 Dior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여성의 이미지, 인체를 중시하여 자연스럽게 밀착된 형태, 단순한 컬러조화, 볼륨감의 소재와 보편적인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클래식 엘레강스이다.

Marc Bohan의 Dior을 위한 디자인컨셉은 액티브하고 세련된 느낌의 이미지, 과장이 심하지 않은 대중적인 적절한 일상적인 형태, 담백한 색상조화와 여러 가지 색상의 혼용, 단아하고 간결한 선, 젊음지향의 여성적인 엘레강스를 표현했다.

Gianfranco Ferré가 나타낸 Dior은 품위있는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로 건축적인 포름의 둥근 형태의 곡선에 여밈이나 햄라인에서 비대칭의 직선적인 대담한 커팅선을 사용하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소재, 포인트 컬러가 있는 동계열의 색상조화를

나타내어 지적이면서 도회적인 세련미를 화려하고 풍요한 이미지의 소피스티케이티드(Sophisticated) 쉬크 엘레강스로 나타냈다.

John Galliano의 Dior은 자연이나 토속성 혹은 원시적 테마와 실제로 본 것과 감성 속에 있는 또 다른 실체라는 심상의 이미지를 유머스러움으로 패러디하여 형태화 한다. 비정형, 부조화의 형태, 은은한 단일색의 조화, 다양한 이질소재조화, 레이스, 자수등 다양한 트리밍의 과다장식으로 그의 Dior은 환상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엘레강스로 표현된다.

3. 디자인 테크닉

Christian Dior의 디자인 테크닉은 볼륨있는 구조적 형태구성에 칼라나 목부분이나 리본, 단추 등을 과장하여 강조하는데 그 강조는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1포인트(Point), 2포인트로 표현하면서 한 요소만을 더욱 강조하여 다른 요소와의 균형미를 나타내는 테크닉이다.

Yves Saint Laurent의 Dior은개더나 드레이프를 자연스러운 옷의 형태로 나타내어 리듬감과 비례적인 배치의 안정감을 표현하며 디테일이나 트리밍의 강조는 그 크기나 위치가 강조보다는 리듬감으로 표현된다.

Marc Bohan이 표현한 Dior은 절제된 형태와 라인, 그다지 과장되지 않은 강조기법과 화려한 직물의 조화로 약화된 강조기법과 리듬감으로 나타난다.

Gianfranco Ferré의 Dior은 건축적인 형태, 그리고 다양하고 화려한 소재와 색채의 혼합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리듬감을 주며 칼라나 상의부분의 리본, 단추, 커프스 등의 디테일이나 트리밍 중 한 요소를 강조하여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까지 나타내는 복합된 조형미를 보인다.

John Galliano가 표현한 Dior은 형태의 비정형화와 디테일, 트리밍, 소재, 색채에서의 해체, 파괴, 변형, 왜곡, 전위의 표현기법으로 다양한 리듬감과 비례를 주며 칼라나 목부분을 강조하거나 한가지 트리밍적 요소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 강조는 다양한 리듬감으로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다. 그는 복합

되고 다양한 부조화 속에서 조화미를 만들어내는 고감도 디자인 테크닉의 균형미를 나타낸다.

Christian Dior 오프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는 <표 1>로 정리될 수 있다.

본컨셉이 전수, 유지되지만 변화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일련의 새로운 라인과 New Look을 발표하여 오프꾸뛰르 모드를 엘레강스로 정립했던

<표 1> Christian Dior 오프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

Designer Originality	Christian Dior (1947~1957)	Y. S. L (1958~1960)	Marc Bohan (1961~1988)	Gian Franco Ferré (1989~1996)	John Galliano (1997~현재)
시대성	· 유크적 모더니즘 (기능적, 기하학적 추상적, 비대칭)	· 포스트모더니즘의 전개(절충주의, 표현 영역확장)	· 포스트모더니즘의 파급(대중모드성향, 표현영역확장)	·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화(풍요함, 정신성, 다양성)	·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화(이미지의 형태화, 혼성모방, 레트로 양식)
디자인 컨셉	· 귀족적인 쉬크 엘레강스 · 곡선의 구조적 형태 · 동일색상조화 · 볼륨감의 소개 · 인위적, 손질된 심플라인	· 클래식엘레강스 ·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 인체를 중시한 자연스럽게 밀착된 형태	· 여성적엘레강스 · 액티브하고 세련된 이미지 · 대중적인 적절한 형태 · 간결한 라인	· 도회적인 쉬크 엘레강스 · 지적인 이미지 · 건축적인 형태 · 동일색상조화 · 비대칭의 커팅선 · 풍성하고 화려한 소개	· 환상적인 유머러스한 엘레강스 · 감성적 이미지 · 비정형, 부조화의 형태 · 동일색상조화 · 다양한이질소재 · 과다장식
디자인 테크닉	· 강조기법 · 복합된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균형미	· 비례, 리듬기법	· 리듬, 과장되지 않은 강조기법 · 단일한 디자인 요소의 균형미	· 리듬, 강조기법 · 복합된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다양성에서의 균형미	· 해체, 파괴, 변형, 전위, 왜곡을 통한 비례, 리듬, 강조기법 · 디자인요소와 원리의 혼합, 복합에서의 균형미

V. 결론

현대사회의 소비문화변화와 오프꾸뛰르 내부의 변화는 오프꾸뛰르를 대중화시키고 있지만 오프꾸뛰르는 아직 최고급 소비지향문화로 인식되며 그 이미지나 상징성, 독창성으로 패션의 예술화를 지향한다. 오프꾸뛰르의 독창적 예술성은 그 메종의 오리지널리티로서 시대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고 패션이미지, 실루엣, 컬러, 소재, 문양, 액세서리 등의 패션경향인 메종의 컨셉을 전수하며 디자인 원리를 통합감각으로서 다루는 디자이너의 개인성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 테크닉이 첨가되어 유지된다. 즉, 메종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는 메종의 기

Christian Dior은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 Gianfranco Ferré, John Galliano에 의해 간결함이나 다양함속에서도 정제된 라인추구, 동계열 색상조화, 디테일이나 수공예적인 트리밍을 강조하여 엘레강스라는 Dior 메종의 기본컨셉을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한 표현기법으로 현대 오프꾸뛰르 디자인 모드를 창조적으로 주도하며 그 조형적인 균형미를 현대 Christian Dior 디자인에서도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패션평론가인 Mario Arzano는 현대 오프꾸뛰르는 Class, Good Taste, Chic한 오프꾸뛰르의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³⁴⁾고 피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장식의 과도한 전위성으로 치우치는 현대패션 경향의 한부분을 지적한 것

으로 오뜨꾸뛰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인 정제된 정형적인 라인과 격조있는 우아함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Christian Dior은 그 주체의 전위적 표현성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나 오뜨꾸뛰르의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현대의 포스트모던한 컨셉과 다양한 기법으로 보다 더 활력있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현대 오뜨꾸뛰르의 전위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새로운 모드를 제시, 창출하여 Dior의 그 슈크한 엘레강스를 재현한다.

시대적 특성과 교체 디자이너에 의해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되어 표현된 Christian Dior 오뜨꾸뛰르의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hristian Dior 메종의 디자인은 각 시대의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았다. Christian Dior 1세는 1950년대 부드러운 곡선의 심플리시티라는 유기적 모더니즘의 성향을 나타냈으며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의 Dior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아방가르드한 경향이 패션컨셉의 감성적 장르의 다양화로 표현되었고 Gianfranco Ferré, John Galliano는 아방가르드한 다양함이 혼성, 병존되어 자연이나 인간의 내면, 정신성이 컨셉화되는 시대적 특성이 예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Christian Dior 메종의 컨셉은 시대적 변화와 교체 디자이너별로 Dior 1세의 귀족적인 슈크 엘레강스, Yves Saint Laurent의 클래식 엘레강스, Marc Bohan의 여성적인 엘레강스, Gianfranco Ferré의 도회적인 슈크 엘레강스, John Galliano의 환상적인 유머러스한 엘레강스 등의 패션이미지로 표현되어 Dior의 전통적인 기본컨셉을 전수하고 있다.

셋째, Christian Dior 메종의 디자인 테크닉은 교체 디자이너의 조형감각에 따라 Yves Saint Laurent, Marc Bohan, John Galliano 처럼 리듬이나 비례를 추가하거나 약화된 강조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특히 강조기법을 잘 나타내는 Dior이나 Gianfranco Ferré는 칼라나 목부분, 상의 부분의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과장하며 무엇보다 Dior 메종의 교체디자이너들은 다른 요소와의 조화를 생각하는 전체 균형미를 추구한다.

참고문헌

- 1) 공미선(1998). 파리와 로마의 오뜨꾸뛰르 디자인 특성. 복식, 39(1), p.39.
- 2) 스투어드 유엔, 백지숙 역(1996).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서울: 시각과 언어, p.21.
- 3) 정시화(1991).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p.222.
- 4) Steven Connor, 김성곤·정정호 역(1993). 포스트모던 문화. 서울: 한신문화사, p.225.
- 5) 김창준(1992).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서울: 라사라, pp.8-91.
- 6) 정시화. 앞의 책, p.134.
- 7) Steven Connor, 김성곤·정정호 역. 앞의 책, p.283.
- 8) 위의 책. p.280.
- 14)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 복식, 37, p.105.
- 10) 김민자. 앞의 논문, p.269.
- 11)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235.
- 12) Book Moda(F/W, 95/96: F/W, 92/93: S/S, 94/95).
- 13) Book Moda(S/S, 2001). p.203.
- 14) Book Moda(S/S, 2000). p.132.
- 15) Book Moda(F/W, 2000/2001). pp.108-09.
- 16) 마이크 페이스튼, 정숙경 역(1999).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 서울: 현대미술사, p.10.
- 17) 이즘패션산업연구원(1993). Christian Dior. 서울: 이즘, p.19.
- 18) 김창준. 앞의 책, p.13.
- 19) 광태기(2001). 혁명적 변화에 나타난 New Fashion의 발생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50(1), p.137.
- 20) 김창준. 앞의 논문, p.14.
- 21) 이즘패션연구원(1993). Yves Saint Laurent. 서울: 이즘, pp.39-41.
- 22) Pierre Berge(1997). Yves Saint Laurent.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p.10.
- 23) Francoise Girod(1987). Christian Dior. Paris: Du Regard, p.42.
- 24) 가재창(1995). 패션디자이너 199. 서울: 정은도서, p.6054.
- 25) 위의 책, p.6052.
- 26) 위의 책, p.1063.
- 27) 진경옥(2002).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패션의 조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12.
- 28) 최수현, 김민자(1994). 복식의 미적범주. 복식, 23, p.202.
- 29) 광태기. 앞의 논문, pp.141-42.
- 30) 김정은, 정홍숙(2000). 제2차 세계대전 후 조형예술과 Christian Dior의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징

70 服飾 第53卷 2號

- 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p.59-60.
- 31) 공미선. 앞의 논문, p.48.
 - 32) 정시화. 앞의 책, p.190.
 - 33) 위의 책. p.238.
 - 34) Book Moda(F/W, 2000/2001). pp.22-23